

■ 주요 기사

○ 하반기 공채 관련 (5건)

중앙	롯데, 하반기 950명 공채 접수 시작
동아	홈플러스 고졸 공채 신설... 올 120명 선발
	롯데그룹, 6일부터 하반기 공채...신입 950명-동계 인턴 350명 등 1300명
매경	'칼바람' 증권사, 신입공채 30% 급감
	롯데그룹, 하반기 1300명 공채

○ 양대 노총 총파업 관련 (1건)

조선	양대 노총, 이달 말 총파업 예고... 은행·철도·병원진료 중단 우려
----	--

○ 안전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1건)

한겨레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	---

○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1건)

경향	[단독]'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이 시들한 이유
----	--

○ 신기후체제 대비 열병합발전 지원 (2건)

동아	"열병합발전, 한국만 규제 묶여 찬밥"...국내외 에너지전문가 250명 심포지엄
한경	"친환경 열병합발전 정부 지원 늘려야"

■ 주요 칼럼 · 사설

○ 청년수당 관련 (1건)

동아	[열린 시선/박정수]청년수당 되짚어보기
----	---------------------------------------

○ 저출산 대책 관련 (2건)

동아	[동아광장/함인희]실패한 저출산대책, 밀어붙이기만 해서야
매경	[정치인 포커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 "내년 대선, 인구정책이 결판"

○ '좋은 일자리 증가' 보고서 관련 (1건)

한경	[사설] "좋은 일자리 늘었다"는 보고서가 던지는 경제해석 문제
----	---

○ 위협의 외주화 관련 (1건)

한겨레	[왜냐면] 구의역 사고, 극한까지 떠넘긴 위협 /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

○ 양대 노총 파업 관련 (1건)

경향	[사설]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양대 노총, 이달 말 총파업 예고… 은행·철도·병원진료 중단 우려 A14면
		내용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 악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달 하순부터 "18만명 노조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정부 "추석 때 연차 써서 9일간 쉬세요" A8면
		내용	정부가 닷새간의 올해 추석 연휴에 연차 휴가를 붙여 근로자들이 최대 9일을 쉴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에 발송
중앙	고용 복지	제목	롯데, 하반기 950명 공채 접수 시작 E4면
		내용	채용 규모는 950명이다. 식품·관광·서비스·유통·석유화학·건설·제조·금융 등 38개 계열사가 이번 채용에 참여한다.
중앙	환경	제목	초미세먼지, 우울증 위험도 높인다 A20면
		내용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서울대 연구팀이 5일 밝혔다
동아		제목	[열린 시선/박정수]청년수당 되짚어보기 A23면
		내용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지자체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이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 복지	제목	[동아광장/함인희]실패한 저출산대책, 밀어붙이기만 해서야 A34면
		내용	단번에 출산율 증가를 가져올 만병통치약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하는 것
	고용 복지	제목	홈플러스 고졸 공채 신설… 올 120명 선발 B3면
		내용	홈플러스가 고졸 공개채용 제도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이후 고교 졸업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12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 복지	제목	롯데그룹, 6일부터 하반기 공채…신입 950명-동계 인턴 350명 등 1300명 B3면
		내용	그룹의 식품, 관광 및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및 제조, 금융 계열사 등 38곳이 신입 공채 950명과 동계 인턴 350명 등 총 1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 복지	제목	'칼바람' 증권사, 신입공채 30% 급감 B4면	
	내용	올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환경	제목	"열병합발전, 한국만 규제 묶여 찬밥"…국내외 에너지전문가 250명 심포지엄 B6면
		내용	한국집단에너지협회장인 유정준 SK E&S 사장은 '제15차 국제에너지기구 지역냉난방분과 국제학술대회 열병합발전 특별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매경	고용 복지	제목	[정치인 포커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 "내년 대선, 인 구정책이 결판" 6면
		내용	향후 대선공약 수립과정에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여당과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전략을 내놓겠다"며 의지를 다짐
		제목	농번기 '무용지물' 외국인 고용허가제 8면
		내용	상용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조차 농업계에서는 부족. 최근 단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무자 제도가 도입돼 농번기에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제목	롯데그룹, 하반기 1300명 공채 20면
내용	롯데그룹은 이번 채용에서 자율 복장 면접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능력 중심 채용 원칙을 이어나가는 등 '열린 채용' 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경	고용 복지	제목	[사설] "좋은 일자리 늘었다"는 보고서가 던지는 경제해석 문제 35면
		내용	이는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로 일자리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회 통념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 편향된 사고로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확대재생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현실은 지옥으로 묘사. 냉철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
	환경	제목	"친환경 열병합발전 정부 지원 늘려야" 14면
내용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열병합발전(CHP)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노동	제목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A13면
		내용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왜냐면] 구의역 사고, 극한까지 떠넘긴 위험 /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A25면
	내용	구의역 사고는 공공조직이 최말단 외주 노동자에게 고용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을 거의 극한까지 전가한 사건이다. 경제적 성과주의와 효율 중심의 공공부문 관리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고용 복지	제목	일터에서 로봇 채택은 인간의 '자해행위'일까 B4면
내용		로봇이 '신속 정확'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투자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 두 관점이 교차. 사람의 영역으로 여겨져온 일을 로봇이 빼앗는다는 관점 대신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단독]‘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이 시들한 이유 12면
		내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차별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 8년 동안 연간 100건 안팎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란 비판이 나옴
		제목	[사설]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 31면
		내용	무엇보다 노동자 동의권을 배제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 압박과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대화다. 아무리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 효율을 높인다 해도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과 노동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끝>